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2. 12. 28.(수) 15:00 ~ 17:00
- 장 소 : 비대면 회의 진행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박익수 위원, 김태용 위원, 박성원 위원
 - 학교대표 : 김영오 학생처장, 성제경 기획처장, 김용철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김지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 박용규 제63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송일찬 대학원 총학생회 부장
 - ※ 배석: 장학복지과 김범녀 행정관

2. 회의 내용

- 안건 설명
 -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 회의 내용
 - < 회의 개최 >
 - 위원 소개 및 인사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관련
 - 간 사 : 위원이 전체적으로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학교대표 : 통상적으로 협의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하였고, 학생 측과 학교 측 추천위원회에서 번갈아 부위원장직을 해오셨으므로 박익수 위원께서 위원장, 학교 추천 김태용 위원께서 부위원장을 하시면 좋겠음.
 - < 위원들 만장일치로 박익수 위원이 위원장, 김태용 위원이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기로 함 >

○ 2023년도 등록금 책정(안) 관련

< 간사 회의자료 설명 >

- 외부위원 : 올해 금리 인상에 따라, 고금리가 유지되면 발전기금 및 산학협력단 등의 이자 수입의 증가분도 내년 교육부대 수입에 반영이 많이 되었는지, 내년부터 추가 수입이 증가되는 것인지?
- 간 사 : 금리 인상에 따른 타회계 전입금 증액은 계속 논의중에 있음. 발전기금과 산학협력단은 주로 정기예금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증가분은 전입금에 반영하였음.
- 위 원 장 : 기금 운영시 중도해지 후에 고금리로 옮기는 것인지, 만기된 부분만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 이자수입은 예산부족액 대책 중 산학협력단 지원, 발전기금 지원, 교육부대 수입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간 사 : 산학협력단 지원, 발전기금 지원은 타회계 전입금으로 전입 받는 부분을 의미하며, 각 법인의 재정 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임. 자금 운용시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각 법인에서 위약금 등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학생대표 : 2021년도 결산자료를 분석해보니 2021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자료의 예산부족액 대책보다 훨씬 큰 금액의 세입이 있었고, 작년 이월금을 고려했을 때 적자 예상액은 이월금과 타회계 전입금을 통해 충당되는 것으로 보여짐. 학교 측이 주장하는 적자 예상액이 이월금과 타회계 전입금과 관련하여 어떤 구조로 운영 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 간 사 : 2020년 적립금 제도를 도입해 상당 부분을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통상적인 이월액은 매년 예산 편성시 본예산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 학생대표 : 결산서에는 세출 항목에는 항상 적립금이 있지만, 다음 연도에 세입 항목에는 적립금 항목이 보이지 않음. 해당 금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지?
- 간 사 : 올해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적립금 132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시에는 사업비로 사용되므로 적립금이라는 명칭으로 표기되지 않음. 우리 학교는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립금을 적립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일하게 운영할 예정임.

- 학생대표 : 대학원 입학금은 현행을 유지하려는 학교 측의 근거가 궁금하고, 등록금 동결시 국고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주시기 바람.
- 학교대표 : 지난 사전간담회시 대학원의 경우 학비 인상 여부 외에 입학금이 수업료와 분리된 부분에 대해 입학금도 수업료에 산입하여 등록금으로 책정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금을 책정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입학금 구조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음.
- 배 석 : 올해 기준으로 등록금 동결을 통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19억원 지원받았으며, 이는 전액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위해 집행함. 등록금 인상시 기존 2유형 장학금액만큼 법인회계 예산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감면분을 충당해야하기 때문에 다른 필요기반 장학금(긴급구호 장학금 등) 제도에 쓸 수 있는 법인회계 가용 예산이 줄어듦.
- 학교대표 :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교내외 장학금 규모를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 장학금 수령 인원과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고 반면에 기타장학금 지급은 늘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배 석 : 교외장학금이 감소하긴 했으나, 전체 장학금 총액으로는 교내·국가 장학금 예산은 줄어들지 않았음.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장학금 신청 인원이 감소한 경우는 있지만 총액은 감소하지 않았음.
- 학교대표 : 기타장학금은 단과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단과대학 및 본부의 평가가중치를 고려하여 시급성, 경제여건 등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하고 있음.
- 학생대표 : 재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 학교대표 :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학금의 총량은 재원에 상관없이 유지될 것임.

- 배 석 : 올해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안정을 위한 장학금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 중임.
- 위 원 장 : 등록금 인상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해당 장학금 수혜 학생들은 다른 대체 장학금을 받게 되는지?
- 학교대표 : 등록금 인상에 따라 국가장학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해당 학생들에게 그 정도 비용은 보전하겠다는 것이 학교의 원칙이고, 학생들과 관련된 예산 원칙은 바뀌지 않음. 학생대표 측은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고 싶음.
- 학생대표 : 학부의 입장은 등록금 인상은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첫 번째 이유는 발전기금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학교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고 전입금을 늘려나갈수 있도록 발전기금과의 협의가 필요함. 두 번째로 유기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 등의 문제는 출연금 심의시 반영했다고 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적자 규모는 충당이 되었다고 판단됨. 마지막으로 신입 총장 재정공약으로 등록금 인상 외에 재정규모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한 상태이고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생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므로 이를 지켜보면서 등록금 인상도 논의하고자 함.
- 학교대표 : 오랜 기간 우리 학교가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이미 발전기금을 많이 전입해 오고 있었다는 반증이 될 것이며, 출연금 인상분에 반영된 물가상승분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
- 학생대표 : 학교 측의 적자 예상액 규모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기엔 효과가 미미하다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으로 적자 예상액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함. 또한 타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길게 진행하면서 예산안 심의도 다루는데, 우리 학교는 국회 예산안 등 자료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회의자료 초안에는 등록금 책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공란이었던 것과 같이, 매년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지 않아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임. 특정 지표가 확정이 되기 전이더라도 학교 측에서 먼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되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

- 학교대표 : 서울대학교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공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며,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한도가 공고되기 전에 등록금 책정안을 미리 논의하는 것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음.
- 학생대표 : 자료제공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자료는 회의 전날 제공받았음. 학교 측에서 12월 31일까지 등록금심의 종결을 제안하는 것은 학생 측 입장에서는 매우 촉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무리 기한을 늦출 수 있다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료를 검토하여 양측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간 사 : 12월 내에 등록금심의를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일정상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대학등록금규칙 개정에 따라 회의자료를 개최 5일 전에 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교육부 인상한도 공고가 예년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도 촉박하게 진행하게 되었음.
- 학교대표 :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제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간담회 등 다른 소통창구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갔으면 함.
- 외부위원 : 작년 대비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졌지만 경제적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은 분명함. 비록 올해는 전년 대비 적자 예상액이 50억 가까이 늘어났지만, 2010년도부터 계속 등록금 동결 내지 인하를 해왔기 때문에 등록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학교대표 : 학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다른 기관처럼 등록금 인상을 주장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을 수 있겠지만, 등록금 책정과는 별개로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학생들도 느끼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음.
- 학생대표 : 올해 등록금심의를 위해 제공받은 자료 상으로는 인상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의 입장이 어떤지 듣고 싶음.
- 학생대표 : 등록금만으로 재정 적자가 해결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다른 노력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 학교대표 : 학생 측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는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제안함. 다만, 학교가 처한 재정상황의 어려움이 구성원 사이에도 공유되고 논의되길 바람.
- 학교대표 :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박을 위해 자료 분석의 시간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됨. 이번 등록금 심의는 동결하는 것으로 동의해주신다면 1차 회의로 마무리하고 그 외의 안건은 향후 다른 소통창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함.
- 학생대표 : 지난 사전간담회처럼 외부위원님들 없이 1월 중으로 학교와 학생 측 간 소통 기회를 가지길 제안함.
- 위 원 장 : 사전간담회 진행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작 전에 먼저 간담회 내용을 설명해주시길 바라고, 학교 측은 국회 예산 확정 등 상황에 따라 제공할 수 없는 자료는 제외하고 최대한 자료제공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람. 또한 학생 측도 2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을 동결할 때,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등록금 인상에 대해 건설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었으므로 지난 회의록의 쌍방향의정신을 내년 후임 위원들에게도 전달해야함.
- 학생대표 : 적절한 자료제공을 전제로 인상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끌어간다는 이야기였고, 올해는 수치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없었다고 판단함. 2023년도에 새로운 소통창구를 통해 자료부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위 원 장 : 등록금 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오늘은 등록금 심의는 동결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확인하고자 함.
- 학생대표 :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차 회의로 종결하는 것과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안)에 학생대표 전원 동의함.
- 외부위원 : 오늘 회의를 종결하는 것과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함. 추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학생 간 신뢰관계를 위하여 자료제공에 대해 사후 논의를 지속하길 바람.
- 외부위원 : 오늘 회의를 종결하는 것과 등록금 동결(안)에 동의함. 향후 등록금

인상을 할 경우 학교 측에서 ‘인상 상한 범위 내’가 아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 위 원 장 :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1차 회의로 종결하는 것에 전원 동의 해주셨음. 또한, 2023학년도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서도 전원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셨기에 의결되었음. 다만, 추후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향후에는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도 사전에 확정해두는 것이 좋겠음. 이로써 회의를 종결함.

3. 결정 사항

□ 2023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관련

-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 대학원 입학금 동결 및 현행유지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합의

<폐회 17:00>

2022. 12. 28.

위 원 장 : 박 의 수 (서명)

학교대표 : 성 제 경 (서명)

학생대표 : 박 용 규 (서명)